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1. 6. 13 ~ 2021. 6. 26 제249호



▲ 시크교 성지, 인도 암리차르의 골든템플에서 물을 마시는 시크교인. 제공: 오후경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한 시크교도가 꽤 무거워 보이는 터번을 두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려 한다. 시크교도들은 대부분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무사들이며 평생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지 않는다. 시크교의 성지인 암리차르의 골든템플에서는 모두가 머리에 무언가를 덮어야 하고, 신발은 신고 들어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에서 씻고, 맥

기도 한다. 이 물을 신성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물은 그냥 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몸을 담그고 씻기 때문에 오히려 더러운 물이다. 그러나 이들이 목마르게 찾는 진짜 능력이 되는 물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수 되신 분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셨다. 존재적으로 목마름이 해결될 자.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요한복음 4:13-14) [GPNEWS]

예자연, ‘교회발 코로나’ 주장 정세균 전 총리 소송·감사청구

‘교회발 코로나’라는 왜곡된 발표로 한국교회를 비난에 빠뜨리게 했던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민사소송과 공직 감사를 청구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지난해 7월 8일 정 전 총리가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사례가 나왔다고 발표, 한국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 한국사회에서 혐오대상으로 여겨지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고 3일 밝혔다.

당시 정 전 총리는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국내 코로나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예자연이 질병관리본부의 당시 국내발생 확진자 추적 결과 교회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한 2명으로, 전체 87명 중 2.29%에 불과했다. 또 n차를 포함,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총 17명

으로 이 역시 당시 감염자 중 19.5%이며, 전체 총 감염자 153명의 1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자연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올해 4월 재 질의한 결과, 총리실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7월 7일까지 신천지를 포함한 다수의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확진자 수도 약 44%를 차지했다.”며 그동안 분리해서 발표하던 신천지 확진자 통계를 갑작스럽게 한국교회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총리실은 교회핵심 방역수칙을 결정, 정규예배의 모든 대면 모임금지, 찬송 및 통성기도 자제를 요구하고 위반시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7일 교계지도자 면담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인 교회가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자연은 이처럼 총리실이 명백한 허위자료를 근거

로 교회가 마치 코로나19 감염의 근원으로 여기도록 낙인찍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정부의 이 같은 행정으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급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도 세상에서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노약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던 소모임을 금지, 교회의 대국민 섬김활동까지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가 코로나 정국을 오용, 인간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신조를 만들어 예배를 제한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극단적인 독재국가 체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었다고 예자연은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실제 확진자가 없는 교회에서 영상출장비가 없어 10여 명이 예배드린 행위를 범죄행위로 단정, 벌금형을 부과하기도 했다. [GP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33)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것이 ‘사망’입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일은 없습니다. 밤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일도 없지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자연스럽게 사과를 맺고, 밤나무는 밤을 맺습니다. 사과나무 숲에 밤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겨우내 사과를 떨구고 있다가 겨울이 하도 길어서 그만 ‘가만 있자, 내가 밤나무였나? 사과나무였나?’ 깜박 잊어버리고 밤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일을 있을 수 없습니다. 정신 없이 그냥 살아가도 저절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창

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는 억지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제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움’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생명이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호흡하고 심장 박동이 뛰는 목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특성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할 때 그것을 온전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일이 절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 ‘죄’가 생명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로마서 5:12). 죄가 들어왔는데 왜 사망이 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범죄하자마자 육체가 금방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은 그들에게 있던 하나님의 원형의



일러스트=김경선

생명, 즉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 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서가 깨지고, 사람을 원망하고, 양심이 찢려 죄책을 느끼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망’입니다. 전 인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죄와 사망의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돈, 명예, 성공이 아닌 가장 절박한 문제, 즉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 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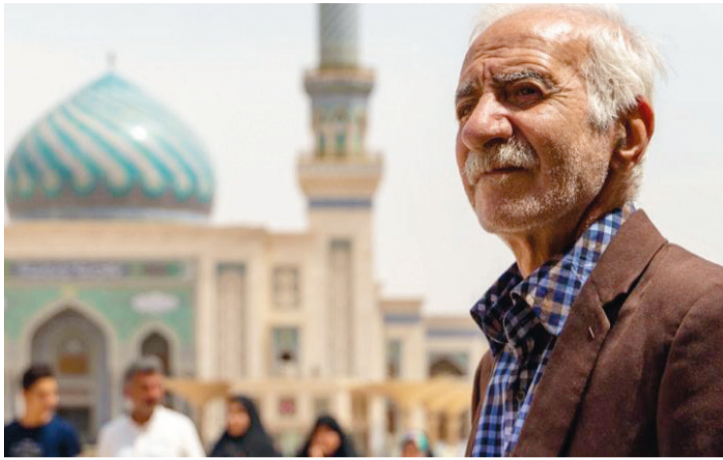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년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이란 교회, 매일 사자굴에 던져지는 듯한 박해 경험



▲ 이란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매일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 출처: 오픈도어선교회

이란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매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오픈도어선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이란에서 가정교회를 하는 네다 씨와 성도들은 전화로 다음 만남을 잡지 않고, 대신 버스 정류장이나 식료품점에서 만난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교회 지도자로서 4명의 성인 자녀를 둔 네다 씨는 과거 엄격한 무슬림으로 알고 있었던 남편의 서랍 속에 숨겨진 성경책을 발견하면서 기독교를 처음 접하게 됐다.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한 그녀

는 기독교인이 됐다. 박해가 가중되면서 교회 건물을 더 이상 찾아갈 수 없게 되자, 남편과 함께 집에서 모임을 갖고 가정교회를 시작했다. 교회 출범 이후 그들은 끊임 없는 공포 속에 살았고, 그녀의 남편은 정기적으로 심문을 받기 위해 끌려갔다. 이러한 일은 몇 년 동안 이어졌다. 네다 씨는 자신과 교회 성도들의 작은 모임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매일 보호를 경험하고 있으며, 목회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우리들 중 일부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당신의 능력을 보여 주시지만,

기독교인들이 압박을 받는 곳에서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란에서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은 정부의 감시를 당하고, 사회와 개종자 가족들에게서 공격을 받는다. 이란 정부는 기독교를 서구 국가들이 이 나라의 이슬람 정권을 훼손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개종시킨 교회 지도자들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 혐의로 구속되고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이란은 오픈도어선교회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8위를 기록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체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지만 이들의 믿음의 삶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다. 이란의 성도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 되고 속히 하나님 나라가 이란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GPNEWS]

美 초등학교, 성경적 가치 고수하다 휴직 처분

“생물학적 소년이 소녀 될 수 있다고 확인 안할 것”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성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다 휴직 처분을 당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루든 카운티 리즈버그 초등학교는 5월 27일, 체육 교사인 바이런 태너 크로스(Byron 'Tanner' Cross)가 앞서 진행된 교육이사회 회의에서 “생물학적 소년이 소녀가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그를 휴직시켰다.

그는 23일 방송된 CBS 뉴스 ‘60분’에 대해 “레슬리 스탈(Lesley Stahl, CBS 유명 앵커)과 인터뷰한 30여 명의 청년들은 ‘성전환을 했으나, 3개월 만에 신체를 변형하는 일로 방향을 느꼈다.’고 말했다.”면서 “그들은 본래의 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더럽힐 수 있는 정책 8040, 8350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학생들을 사랑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절대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난 선생이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신앙에 어긋나

기 때문에 ‘생물학적 소년이 소녀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이를 학대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8040 초안에는 ‘교사들은 학생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성소월주의자(LGBTQ)와 트랜스젠더인 직원은 학생의 학적부에 기록된 이름과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이 택한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책 8350은 “루든 카운티 공립 학교 직원들은 성소월주의자와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별 정

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시에는 1회용 개인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뿐 아니라 “학생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이러한 접근을 원하겠지만, 다른 학생들은 더 많은 프라이버시 제공을 원할 수 있다. 관리자는 기존 학교 시설을 고려해 학교의 규모에 맞는 성별이 포함된 화장실이나 1인용 화장실을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GPNEWS]



▲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실.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unsplash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아이티,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 21만 7000명

카리브해 극빈국 아이티에서 올해 중증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5세 이하 어린이가 8만 6000명(작년 대비 200% 증가),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는 21만 7000여 명(작년 대비 61% 증가)으로 예상된다고 유니세프가 최근 밝혔다. 이 어린이들은 당장 도움을 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아이티는 인구 1100만여 명 중 44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이 중 43%에 달하는 190만 명이 어린이다.

31만 명이 사망했던 2010년 대지진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열악한 상황과 거센 반정부 시위, 치솟는 인플레이션 등 극심한 혼란이 지속되는 아이티를 돌보아주시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리비아 해변에서 어린이 익사체 증가

지난달 말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인근 마을 해안에 쓸려 올라온 어린이 3명의 시신은 유럽행 난민들 가운데 일부인 것 같다고 유니세프가 최근 발표했다. 아이들 가운데는 3살 유아와 생후 6개월 밖에 안 된 아기도 있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리비아 해안에서 단속된 이민과 난민은 어린이 480명을 포함한 9650명이나 되며, 단속된 어린이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90%나 증가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는 난민들과 비참하게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땅을 떠도는 아이들에게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찾아가 주시고, 도움의 손을 허락하셔서 육체와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한국 개신교계, 인권위의 “채플 의무는 ‘종교 자유 침해’” 판결 철회 촉구

인권위원회가 지난달 광주 의 한 사립 기독교대학의 채플 의무 참석에 대해 ‘종교 자유 침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총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등이 성명서를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개신교계는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과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른 종립학교 운영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며 대법원 관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기독교대학에 대한 이해 없이 한쪽의 자유와 평등만을 외치는 인권위의 모순을 돌아보게 하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교육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음세대를 세우며,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1년 6월 14일 ~ 6월 26일

6월 14일 ~ 6월 19일 6.15~18(11~17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위**)010-4510-1070, 6.15~18(14~16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6.17(0시)~18(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들람공동체(정**)010-3697-0641, 6.18(13~17시) ▶경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6.18-19(06~18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32, 6.18~(10시)~19(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6교회 진행중.

6월 21일 ~ 6월 26일 ▶광주 북구 / 광주예수마을교회(박**)010-2330-5849,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6.21(10시)~22(17시) ▶강원 고성 / 아야진교회(홍**)010-3191-8622, 6.21~6.26(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6.24~26(10~22시) ▶경기 고양 / 대화사랑의교회(김**)010-4058-0675, 6.25(0~24시) ▶제주 조천 / 함덕제일교회(박**)010-5002-2046, 6.25~26(09~21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그 외 8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낙태반대 태아생명 살리기운동,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다



▲ 전국 거리에서 시민들에 의해 태아생명 살리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충청 천안, 인천 운서역, 서울 낙성대역 앞에서 거리 홍보를 하는 모습. 제공: 지저스아미

71개 지역에서 가족, 지인 단위로 거리에서 피켓팅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된 법 개정 시한이 마감된지 반년이나 지난 현재, 낙태반대 생명존중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월간 지저스아미 5월호는 '전국으로 번져가는 태아생명 살리기운동'을 특집기획으로 다루며, 낙태반대, 태아생명 살리기 거리생명운동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민들의 가두홍보활동이 전국 71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태아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태아였어요' '1년에 낙태 110만 건, 하루에 3000건' 이런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가족 단위 또는 지인들이 연합하여 거리생명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용희 교수(지저스아미 발행인)는 좌담회를 통해 "지난해 11월 에스더 철야기도모임에 참석한 한 부부가 강남역에서 낙태반대 피켓을 들면서 시작된 거리생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이 운동으로 우리나라가 생명을 존중하고

태아를 살리는 나라로 새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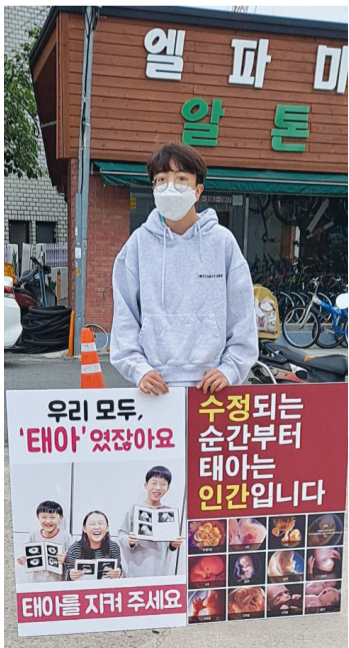
이 좌담회에 참석한 이선형 목사(강원도 춘천)는 "과거에는 미혼모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낙태반대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낙태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지킨 미혼모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그 이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거리생명운동의 의의를 나눴다.

경기도 판교역과 미금역에서 낙태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오진숙 권사는 "70~80년대 성도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한 채 낙태를 했다."며 "교회에서 낙태가 죄라는 인식과 생명존중에 대해 주기적으로 가르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낙태반대운동은 단지 태아생명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정권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생명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고 있다. 김영미 강도사는 "거리생명운동에 참여하면서 생명의 존귀함을 외치다 보니 이 땅에서 생명을 유린당하는 북한동포를 위하는 일도 연결되고, 주변의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일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정치인들이 낙태죄 문제 해결에 사명감을 갖고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낙태반대, 태아생명 살리기 거리생명운동은 서울의 경우, 강남역, 서울대입구역, 낙성대역, 신촌역 등 13개 지역에서, 경기도는 기흥역, 야탑역, 역곡역, 김포구래역, 판교역 등 30개 지역에서, 인천, 강원, 충청, 대전, 대구, 춘천, 원주, 대전, 천안, 구미, 부산, 익산, 군사, 전주 등 71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랑, 생명 전국네트워크로 연락하면, 전단지(국민용, 교회용)와 피켓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010-2190-1505 [GPNEWS]



▲ 경남 하동에서 거리 홍보를 하는 모습. 제공: 지저스아미

낙태죄에 대해 무법사회가 된 한국,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낙태죄'와 관련, 현재 어떤 법률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무법사회로 작동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관련 법 개정 시한인 2020년 12월 말에 지나도록 입법기관인 국회가 대체입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의 분립으로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제틀을 국회의 무책임한 직무유기로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지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다.

현재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0년 현재 0.86명으로 세계 최저 상태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입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3.09명)이며, 그 뒤를 이어 멕시코(2.13명), 터키(1.99명), 프랑스(1.81명)이며, 미국(1.73명), 일본(1.42명) 역시 1명 이상의 자녀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우리 사회를 계속 유지할 경우, 우리 사회는 머지않아 인구절벽을 지나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인구감소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활동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늘어나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노년층에 이를

때 가족부양은 물론 국가 차원의 복지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구감소로 인한 고통을 수십 년 이후 뼈저리게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행정관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를 범죄시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73개국이다. 허용한다고 해도 임신 주수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도 24개국에 이른다.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 위한법정책연구소)는 지저스아미 기고문을 통해 "일부 낙태 찬성론자들이 낙태 금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국제사회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 지난해 12월 여성 목회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낙태법 개정을 요구했다. 제공: 생명 존중 여성지도자여성목회자연합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회와 인권위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내놓고 있는 것이다. 미래 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회지도층 집단의 도덕적 해이나 다름없는 모습이다.

또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낙태 처벌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없다. 전 세계 198개국 중 125개국은 의학적이거나 강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 낙태를 금한다. 낙

권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을 통해 사산율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라는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또 '시민적 권리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의 감시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반논평 제36호 역시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56)

911테러로 3000명 사망, 매일 4500명 낙태로 살해

열등한 종자를 없애는 가족계획... 진화론의 산물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1936년에 독일 대법원은 '독일에 있는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허용하는 길을 열어 주었다. 적어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히틀러는 "나는 해충처럼 번식하는 열등한 인종들을 박멸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히틀러는 유대인이 열등한 종(種)이며, 독일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기에 마땅한 우월한 인종이라고 믿었다.

영국의 유명한 화학자이자 창조론자인 로버트 클라크는 그의 책 '다윈: 진화의 전후 이야기 (Darwin: before and after: the story of evolution)'에서 이렇게

말했다. "히틀러의 마음은 아마 어릴 때부터 진화론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진화론적 사상은 그의 자서전인 '나의 투쟁' 속에 모든 것의 기초로 깔려 있다." 히틀러는 약자를 밟는 것이 강자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히틀러는 그의 책에서 "자연이 약자가 강자와 교배하는 것을 바라지 않듯이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과 섞이는 것은 더욱더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노르웨이인이 순수 아리아인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그는 독일인은 대부분이 아리아인이고, 지중해인들은 약간 아리아인이며, 슬라브인들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유인원이고, 동양인들은 약간 유인원이며, 아프리카 흑인들은 대부분이 유인원이고, 유대인들은 순수 유인원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히틀러는 진화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죽였다. "열등한 것들을 없애 버리자."

1936년에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다. 그리고 흑인 아프리카 선수인 제시 오웬이 가장 많은 금메달을 땀다. 히틀러는 아주 화가 나서 말했다. "나의 사람들을 이 동물들과 경주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히틀러는 "기독교를 존재했던 가장 치명적이고 유혹적인 거짓말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생물학적 진화가 종교를 없애 버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행 17:26)라고 말하는 성경과 종교를 대적하는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그들은 "우리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왜냐하면 독일법보다 더 높은 법,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1973년에 미국 대법원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태어나지 않은 이들



▲ 미국의 한 거리에서 낙태반대 활동을 하는 시민들. 출처: justiceride.org 캡처

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4500만 명의 아기들이 미국에서 죽임을 당했다. 세계적으로는 10억 명이다.

2001년 9월 11일에 3000명의 미국인들이 테러범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같은 날, 4500명의 미국인들이 낙태주의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심지어 50% 더 많은데도 누구도 이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음 날에도 같은 일이 또 일어났다. 그 후로도 매일 911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마가렛 생어는 열등한 종자를 없애기 위해 '가족계획'이라는 단체

를 시작했다. 그녀는 흑인과 유대인과 동양인들을 '인간 잡초'라고 여기며 쓸어버리려고 했다. 히틀러가 유대인이 국가의 몸의 기생충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마가렛 생어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여자의 몸의 기생충이라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잠 6:16~17)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신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신 27:25) [GPNEWS]



선교 통신

저녁마다 끓던 나라공고 화산의 대폭발... 피난민이 되다



▲ 하루아침에 피난길에 오른 민주공고 고마 시민들. 제공: 김경희 선교사

화산폭발, 지진,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나에게 주님은 이번 콩고 민주공화국 나라공고 화산폭발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게 하셨다.

나라공고 화산은 우리 집이 있는 고마 시내와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이다. 그래서 집에서도 육안으로 나라공고 화산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깝다. 저녁이면 끓어오르는 용암의 붉은 화염을 보고 때로는 감탄을 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한 달 전부터 유난히 화염의 양이 많아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문제는 불안함을 느꼈지만 화산폭발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다. '설마 또 터질까?'하는

안전 불감증. 분명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땅 위에서 있으면서도 문제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다. 화산 관측소도 이 미세한 진동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정말 어느 누구의 경고 한 마디가 없었다.

어느 때처럼 평온한 저녁을 맞으며 식탁에 둘러 앉아 막 식사를 하려 할 때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화산이 터졌어요." 그리고 시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재도구들을 간단히 꾸러 미친 듯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경고 없이 찾아든 이 재앙 앞에서 먹으려 했던 것, 일하려고 한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고 황급히 이웃나라 르완다, 혹은 서쪽의 사계나 미노바로 피신을 했다.

용암분출 이후 지진은 일주일간 지속됐다. '우르르!' 잠을 자다가도 땅이 흔들리는 진동에 잠이 깨고, 밥을 먹다가도 진동이 오면 멈췄다. 진동이 거듭될수록 사람들은 두려움에 집안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건물 밖에서 잠을 잤다. 계속되는 지진으로 집이 흔들리고, 도로 곳곳에는 균열이 보였으며, 간혹 틈 사이에서 가스불이 분출되기도 했다. 지진 경험이 없었던 나는 지난 수요일 규모 5.5 강도로 지

진이 왔을 때 두려움과 염려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다시 내리던 대피령으로 서쪽 사계 쪽으로 이동했다. 숨 막히는 두려움에 너도 나도 짐 보따리를 하나씩 들었다. 어떤 이는 매트리스를 메고, 그렇게 새벽에 다시 피난길에 올랐다. 비까지 내리는 새벽. 차들은 질주하고 아이의 손을 잡은 엄마와 그 가족들은 다시 그 먼 길을 걸어서 피난을 가고 있었다. 정말 부를 이름이 없었다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루아침에 피난민이 되었다. 땀감으로 밥을 하고 구수한 반찬이 화로에서 끓고, 기대감에 뭉떡을까 하는 설레임이, 담요로 따뜻하게 잠을 자는 호사가 사라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피난민이 되니 아무것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시간도, 공간도, 내일이라는 소망과 계획도 모두 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부를 이름을 주셨기에 이 모든 시간을 더욱 열방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통회하는 시간으로 바꿔주셨다. 짧은 피난의 시간을 지내고 다시 고마로 돌아왔다. 오직 주님의 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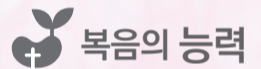
심만 남기를 구하는 시간이었다. 이제는 지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호수나 도시 지층에서의 가스분출도 멎었다. 짧다면 짧은 이 시간들을 겪으며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교훈은 눈으로 본 화산이 폭발할 수 있는 것임에도 무시하고 무관하게 살았던 나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요, 고마 시민들의 태도 같았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건물도, 사람도, 풀도, 꽃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남지 않고 용암이 지나면 폐허가 되듯, 오직 말씀만 영원한 것임을 몸으로 배우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언제든 피난민이 될 수 있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이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삶인지 가슴에 새겨주셨다.

심판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이렇게 급히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오시리라.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죽고 사는 이 삶만이 더욱 소망 되게 하신다. 고마여 일어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마라나 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GPNEWS]

콩고민주공화국 고마= 김경희 선교사



사랑은 성령의 증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묘사된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거나 적어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다. 사랑의 부재는 성령 부재의 증거다. 이것은 정직한 결론이다.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의 서로 다른 얼굴들이다. 희락은 기뻐하는 사랑이요, 화평은 안식하는 사랑이요, 오래 참음은 견디는 사랑이요, 양선은 예의 바른 사랑이요, 자비는 행동하는 사랑이요, 충성은 신뢰하는 사랑이요, 온유는 양보하는 사랑이요, 절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 [GPNEWS]

성령님 (A.W. 토저)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자 안식이 찾아왔어요”

믿음으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이근주 집사(원주염광교회)



© 복음기도신문

하나님을 믿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유별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따라간 세월 끝에 결국,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믿음의 부도’를 맞았다.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때,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믿음이 이제는 자신을 움직여 간다고 고백하는 이근주 집사를 만났다.

-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처음 교회 가게 된 건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이었어요. 교회 유치부 선생님이 저를 처음 교회에 데리고 가주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며 선생님께서 한글을 배웠어요. 교회는 제게 천국이었어요. 우리 집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우리 집은 늘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38세에 과부가 된 할머니와 3대 독자인 아버지, 엄마는 할머니의 미움의 대상이었고 유약한 아버지는 상을 뒤집어엎는 것으로 힘든 것을 표현하셨어요.”

- 어린 나이에 많이 힘들었겠네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율동을 하는 게 생소했지만, 웃음도 나고 너무 즐거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집은 우리 집과는 다른 즐거움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 발로 교회를 나갔어요.”

유치부 시절, 교회 선생님의 전도로 교회 발걸음

- 어린 꼬마가 집에서 혼자 교회를 다녔다는 게 놀랍네요. 신앙생활은 어땠나요?

“고3이 되면서 공부 핑계로 교회와 멀어지게 됐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춤추고 술 마시고 왓지떨만한 분위기가 좋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에 찢리던 것도 사라지고, 완전히 주님을 떠났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의 각박한 삶만 보다가 부인과 아이들과 손잡고 교회 가는 장로님 가정을 보는데, 행복해 보였어요. 나도 나중에 그런 가정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게 된 거예요. 남편과 결혼을 하면 아이

들이 행복할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막상 결혼하고 보니, 불신자 남편과 심한 고부갈등으로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8년 만에 얻은 아들인 남편에 대한 애착이 심하셨어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 첫 아이를 낳고 둘째까지 임신했어요. 결혼 생활에 회의가 들면서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친정 엄마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혼하면 엄마가 상처받으실 것 같아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괴로운 마음이 계속되면서 제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제공: 이근주 집사

- 어떤 증상이었죠?
“사람을 보며, 음란한 생각을 했어요.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라며 어떻게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어요. 뱃속에 아이는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됐어요. 그렇게 사는 게 어렵고 힘들니까 비로소 교회를 찾게 되더군요. 예배시간이 아니라도 무작정 교회에 찾아가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기별 곳이 없어 찾게 된 교회였는데, 울고 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기도원까지 가게 됐어요. 한번은 예배를 놓쳐서 벤치에 앉아 성경을 펴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11장 28절을 보는데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나의 삶은 죄로 얼룩졌지만, 쉬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졌어요.”

우연히 성경에서 위로의 말씀 발견

- 말씀대로 쉬이 찾아왔나요?
“아직은요. 둘째 아들을 낳고 30개월이 됐을 때, 자폐아 판정을 받았어요. 아이가 방바닥에 머리를

짚는 이상한 행동을 하길래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자폐 성향이 많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서울에서 좋다는 언어치료, 음악치료, 운동치료 등 치료라고 붙은 곳은 모두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치료를 해왔던 아이 엄마들을 보게 됐어요. 많은 치료비를 들여서 힘들게 다녀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폐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해요. 이 애를 잘 길러야겠는데, 난 힘이 없고, 아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이 되셨나요?
“그러나 그 이후 하던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빚을 많이 지게 되면서 집을 팔고, 그 사이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생전 처음으로 식당을 하게 됐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훈련학교를 계속 섬겼어요. 하지만 복음을 들으면서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데,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제 음란한 실체를 알면 안 되니까 꼼꼼히 싸매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간 거죠.”
- 내면이 많이 어려우셨겠어요?
“남편과 함께 식당을 하면서 설거지하고, 차로 배달도 하고, 막내는 어머니가 기르시고, 정신없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가 아들이 자폐치료를 받았을 때보다 더 흑암 같은 시간이었어요. 복음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나한테는 점점 어려운 일만 일어나는지, 아무에게도 기댈 수가 없고, 누구에게도 어려움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늦게 얻은 귀한 자식인데도 오히려 키우는 게 힘들고 고단했어요. 그때 찬양 하나를 부르게 됐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구나. 나를 이끄시길 원하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점점 절망이 됐어요. 이 아이는 나아지지 않겠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가 음란한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본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 혼자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위기를 이겨내셨나요?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못하고 있을 때, 나를 마태복음으로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때부터 주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내게 오라고 하셨고,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난 아직도 쉬이 무엇인지 몰라요. 너무 괴로워요, 주님.’ 이후 아이를 핑계 삼아 시부모님과 떨어져 한적한 시골로 집도 옮겼어요. 그러나 아이를 대할 때 괴로운 마음과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순회선교단이 주관하는 중보기도학교가 열렸어요.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참여하게 됐어요. 그때는 중보기도도, 복음도 잘 몰랐죠. 훈련을 받으며 강의를 통해 많은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됐어요. 그 사이 결혼 10년 만에 막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빠와 떨어져 사니까 아빠 목소리만 들으면 울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시부모님과 온 식구가 원주로 오게 됐어요.”
- 가족과 다시 함께 살면서 회복

음의 휘방꾼이었어요. 둘째 아이는 일반 학교에 보내려던 저의 고집 때문에 중학교 올라가서 왕따를 당해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어요. 나중에 둘째를 장애인 학교에 보냈더니 그제야 밝아졌어요. 내가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구나. 아이를 내가 괴롭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으로 복음을 쫓아 열심히 살았지만, 그게 제 큰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고, 내가 특별히 열심을 내서, 내가 힘들었으니까 보상으로 복음을 받은 것 같은 자긍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 로마서 말씀처럼 원한다고, 달음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네요.
“내가 먼저 살아야겠구나. 내가 주님을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말하고, 이 길을 우리 가족들과도 같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대로 어정쩡하게 복음을 안다고 살아가면서 삶에서 실체가 되지 않은 채로 멈추실 것 같지 않았어요. 복음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늘 다른 사람이 안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나왔어요. 이후 집을 떠나 몇 달간 공동체 훈련을 받으며 제가 진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훈련을 시작하기 직전에 아버지가 소천하시면서 정신이 없었는데도,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훈련을 받으면 은혜가 총만하고 감사만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숨이 막히고 감옥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주님에게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이 어려워지면 음란한 생각이 끊이질 않고, 권위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높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제 존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전적으로 보여 주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제 존재가 이런지 몰랐을 거예요.” [GNNEWS]

찬양,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 누리

- 찬양 하나가 버틸 힘이 됐군요.
“힘들어도 훈련을 계속 받고, 복음을 어떻게든 더 접하기 위해 기



▲ 신앙 공동체훈련 기간 중 발표하고 있는 이근주 집사. 제공: WMM

회가 닿는 대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갔어요. 그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고 분명히 믿는데, 나의 실상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어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불신자 남편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복

음이 휘방꾼이었어요. 둘째 아이는 일반 학교에 보내려던 저의 고집 때문에 중학교 올라가서 왕따를 당해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어요. 나중에 둘째를 장애인 학교에 보냈더니 그제야 밝아졌어요. 내가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구나. 아이를 내가 괴롭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으로 복음을 쫓아 열심히 살았지만, 그게 제 큰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고, 내가 특별히 열심을 내서, 내가 힘들었으니까 보상으로 복음을 받은 것 같은 자긍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 로마서 말씀처럼 원한다고, 달음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네요.
“내가 먼저 살아야겠구나. 내가 주님을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말하고, 이 길을 우리 가족들과도 같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대로 어정쩡하게 복음을 안다고 살아가면서 삶에서 실체가 되지 않은 채로 멈추실 것 같지 않았어요. 복음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늘 다른 사람이 안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나왔어요. 이후 집을 떠나 몇 달간 공동체 훈련을 받으며 제가 진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훈련을 시작하기 직전에 아버지가 소천하시면서 정신이 없었는데도,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훈련을 받으면 은혜가 총만하고 감사만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숨이 막히고 감옥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주님에게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이 어려워지면 음란한 생각이 끊이질 않고, 권위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높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제 존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전적으로 보여 주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제 존재가 이런지 몰랐을 거예요.” [GN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강권적인 은혜의 복음 (9)

‘나의 회개가 곧 한국교회의 회개다’

부끄럽게도 이만하면 됐지 더 바랄 게 있겠나 싶었던 내게 몇 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 사탄이 내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그래 인간이니까...’라며 이해해 보려다가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탕자 형의 모습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적잖게 당황했다. 누가복음 15장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어느 자리인 줄 알고 위장하고 들어와 있어.’라며 비판하고 정죄하며 분노하던 내게 탕자 형에게 하는 아버지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집 나간 탕자가 용서 받을 수 없는 패튼이 고스란히 내게 반복되는 걸 보게 됐다. 내 몫의 유산, 아버지의 전부가 걸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전부로 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받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주님 배신 안했어.’라고 말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동생을 향

해 분노하는 탕자의 형을 발견한다. 심령 안에 숨겨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완고함과 강박함을 마주한다. 스스로 만족에 빠진 오만방자함이 무서운 심령의 병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탕자처럼 얻어지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이 은혜의 잔치를 회복해야 하는가? 내가 회개해야 한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변함없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고,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어쩌면 가장 큰 걸림돌은, 탕자 형같이 자기 의에 총만하여 비판하고 있는 우리일지 모른다. 아버지가 설득할 사람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못 들어오겠다고 버틴 자기 의에 총만한 바로 그 형, 큰 아들이었다. ‘복음, 돌아온 아들을 위한 그 잔치’는 항상 펼쳐져 있다. 인장반지

와 발에 신기는 신발, 아름답고 존귀한 옷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주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하신다. 그 잔치를 가로막지 말고 함께 기뻐해야 한다. “오 하나님. 이때에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를 마음껏 펼치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잔치를 제가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거기에 기쁘게 당신의 기쁨이 되어 서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외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잔치를 마련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새로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두 손을 주님을 향해 들자.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2018년 4월 <끝>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일러스트=이예민

2021학년 헤브론원형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안내

헤브론원형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다음세대 선교사들의 행복한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세대 선교사들은 응답하십시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 모집 대상**
 - 2021학년 현재 초등학교 4학년(11세)부터 중학교 3학년(16세) 연령대의 학생. (고등학교 1학년(17세)은 1년 하향지원 가능)
 -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분명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자발적으로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
- 입학설명회**
 - 2021년 7월 3일(토) 오후 2시~5시 (장소는 개별공지)
 - 입학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2021년 6월 7일(월)부터~2021년 6월 26일(토)
 - 참가신청은 이메일(hebronschool@hanmail.net)로 접수 요망.
 - 입학설명회는 지원하는 학생과 양 부모님 중 한 분은 필히 참석. (해외 거주자 문의 요망)
- 원서교부**
 -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만 교부. (입학원서 전형료 5만원)
 - 원서접수기간: 2021년 7월 3일(토)~2021년 7월 23일(금) 소인. (해외 거주자 문의 요망)
- 입학전형 일정**
 - 1차 서류심사 (1차 합격자 발표: 2021년 7월 31일 토요일)
 - 2차 2021년 8월 2일(월)~2021년 8월 7일(토). 'Camp Go up to Hebron!' (Camp기간 중 면접과 시험이 포함)
 - 3차 2021년 8월 9일(월)~2021년 8월 11일(수) 최종면접 (2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021년 8월 14일(토)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년 9월 7일(화) 입학식
- 문의 및 접수처**
 - 010-2461-1718, 010-8952-0981, 070-4369-7656 헤브론원형학교 입학사무처
 - hebronschool@hanmail.net
 - 우)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2길 168-66 헤브론원형학교 (구 시온수양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2021 헤브론캠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훈련생 모집

- 대상: 초6학년 ~ 고3학년 연령대 형제 자매
- 기간: 2021. 6. 28(월)~7.1(목) (3박4일간)
- 접수기간: 2021. 5. 21(금)~6.15(화)
- 장소: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원서: 헤브론원형학교 홈페이지(www.theschoolhebron.org)에서 다운로드 이후 우편접수
- 회비: 10만원(문의: 010-2469-4641, 010-8344-1718)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선한사업 / 선한기업

엘타임

선한사업

디모데전서 6:17~19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기업

잠언 16:8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 전문소방시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문의 : 033)761-0078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항암치료 가운데 기도로 은혜를 누리다

암의 재발로 항암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매일 기도학교'를 참석했다.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신 시간이었다.

주위에 항암치료하던 언니들이 하나둘 천국으로 가면서 내게는 죽음이 날마다 실재였다. 게다가 어려운 가족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족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지 못하며 영혼의 목마름이 계속됐다. 미움과 판단, 정죄가 올라올 때마다 죄책감 때문에 가족들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번번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발견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되지 않는 절망이 깊어졌다. 항암 4차 이후 식도염과 위염까지 찾아와 먹지 못하는 괴로움이 더해져 주님 앞에 엎드렸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를 내게 주셨다. 나의 최선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했던 시도를 깨뜨리시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다. 그동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주셨다는 믿음을 주셨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가족들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순간순간 옛 자아가 반응하려고 하지만, 그 옛 자아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이미 죽었음을 인식하고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 실패하기도 하지만 진리에 계속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진리의 전쟁임을 알려주시고 수비수가 아닌 공격수로 죄와 싸우는 전쟁을 가르쳐주신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 나의 건강 상태로 생각과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지만 말씀을 구하고, 기도수첩에 적고 기도시간에 보면서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고 전쟁하는 군사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원한다. [GPNWS]

구어주셨다는 믿음을 주셨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가족들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순간순간 옛 자아가 반응하려고 하지만, 그 옛 자아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이미 죽었음을 인식하고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 실패하기도 하지만 진리에 계속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진리의 전쟁임을 알려주시고 수비수가 아닌 공격수로 죄와 싸우는 전쟁을 가르쳐주신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 나의 건강 상태로 생각과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지만 말씀을 구하고, 기도수첩에 적고 기도시간에 보면서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고 전쟁하는 군사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원한다. [GPNWS]



일러스트=고은선

구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비굴하게도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교만하고 완악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셨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기도를 주님은 기

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합이니”(갈 2:19)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는, 복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사탄의 속임에서 살 수 있는 생명으로 바

곽은아

복음의 소리 316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마음을 나눠준 내담자들의 경험과 나눔이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없나요?

Q 저는 신학을 했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입니다. 늘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복음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살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나요?

A 복음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시들어가던 영혼이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우리 내면을 설레게 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식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할까요? 우리는 한 평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나의 노력으로 보다 나은 삶, 인정받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한 평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많은 것을 성취해도 또 설혹 아무런 성과 없이 빈 바구니 밖에 남지 않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모두가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원형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원형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복음은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비밀한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나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자살은 그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공로를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PNWS]



北 교화소, 영양실조로 사망자 속출... 화장 이후 재는 인근 밭에 뿌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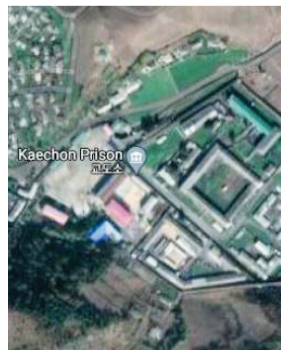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의 평안남도 개천교화소에서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최근 보도했다. 이는 교화소 내 치료 여건 악화와 영양 보충에 도움을 줬던 면회가 대폭 줄어든 탓으로 전해진다.

올봄 개천교화소 남·여자 관리과에서 각각 134명, 121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사망한 교화생은 모두 시체처리반 로(盧)에서 태웠고 잿가루는 교화소 인근 밭에 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서 노동단련형을 받은 사람은 공민의 권리가 유지되고 노동교화형을 받은 사람은 박탈된다. 공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교화소에서 사망하면 '죄를 다 씻지 못한 죄인은 죽어서도

나라의 푸른 하늘을 볼 자격을 상실해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명목으로 화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민권이 유지되는 노동단련형을 받은 사람이 교화소에서 사망할 경우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화소 내 영양실조가 만연하지만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을 위한 별도의 치료는



▲ 북한의 개천교화소 위성 사진. 출처: 데일리NK 캡처

없고 약간의 운동이나 햇볕 쬐기가 전부다. 또한, 교화소 내 영양부족분을 채워주는 데 특정한 역할을 했던 면회

北 어린이가 나라의 왕?... 탈북민, “발육부진 강제 노동 실상” 고발

북한이 6월 1일 '국제아동절'을 맞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자국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운다.'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국제사회와 탈북민들은 북한 어린이들이 발육부진 및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등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2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국제사회는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다양한 우려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은 공동 발표한 '2021 아동 영양

마저 크게 줄어들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교화소 규정상 면회는 3개월에 한 번 가능하며, 이

北 어린이가 나라의 왕?... 탈북민, “발육부진 강제 노동 실상” 고발

실조 추정치 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31만 7800명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전체 5세 미만 어린이의 18.2%에 해당되는 수치다. 북한 어린이들의 발육부진 비율은 3.2%인 미국보다 6배, 또 2.2%인 한국보다는 7배 넘게 높다.

또 미 국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연례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어린이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정권은 부모와 탈북했다

때 면회객들이 가져온 진음식(밥, 국, 떡, 반찬 등)을 먹는 일은 영양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러나 코로나

19 등의 이유로 작년 8월 이후 전 교화소적으로 약 70% 이상의 수감자가 면회를 받지 못했다. [GPNWS]

北 어린이가 나라의 왕?... 탈북민, “발육부진 강제 노동 실상” 고발

가 붙잡힌 어린이들을 노동 수용소에 감금해 최소한 5년간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특히 어린이들은 북한 당국의 가혹행위와 처벌 때문에 심각한 영양실조에 처하게 된다. 또 북한은 12년간의 무상 교육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지만, '성분' 제도에 따라 일부 어린이들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처벌을 당하기도 한다. 또한 국제사회는 어린이 수천 명이 동원되는 집단체조에서도 강제 동원과 가혹한 훈련은 물론 체벌까지 가해진다며, 이를 심각한 어린이 인권 유린으로 보고 있다. 유엔 북한인



▲ 북한의 어린이들. 출처: WFP 캡처

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대집단 체조가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에 위협적인 일이라며, 이는 명백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GPNWS]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데이빗 스미스의 <큐바이 19>

숨겨진 상처가 은혜로 치유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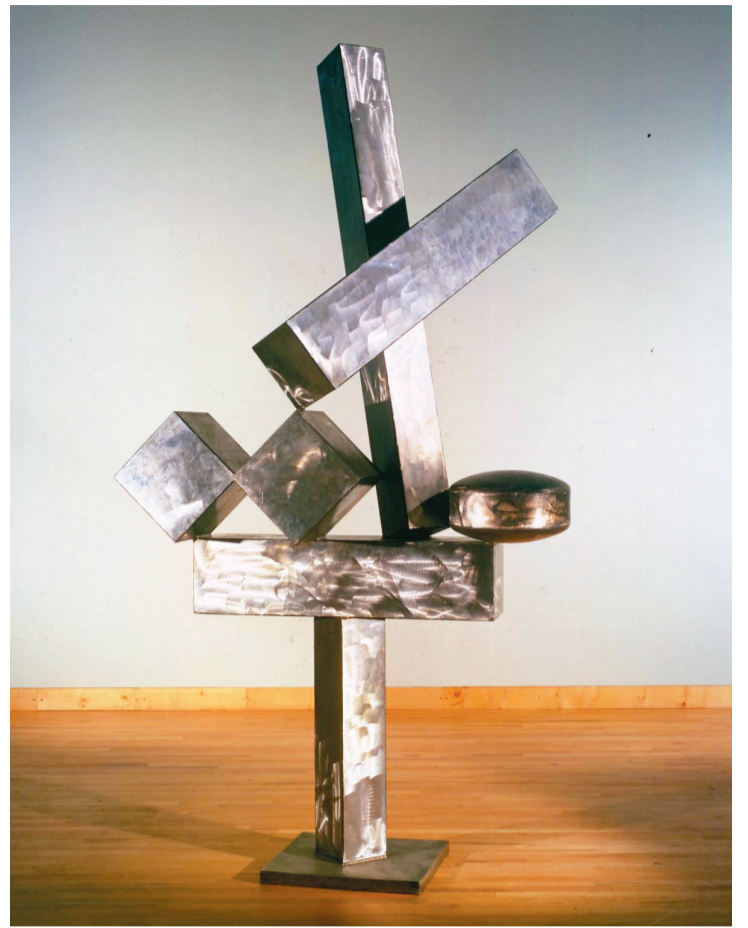
데이빗 스미스(David Smith)는 용접 기법을 도입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미국의 조각가이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조각은 대부분 청동 주조였기에, 스미스의 용접 조각은 늘 주목의 대상이었다. 청동 조각과 달리, 용접은 그때그때 작품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어 즉흥적이고 우연적인 표현이 가능했다. 또한 용접으로 녹은 표면이나, 날카로운 모서리처럼 다양한 금속 성질을 보여주었다. 1960년대에 스미스는 기하학적 형태를 용접하고 표면을 갈아낸 큐바이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대부분은 윗부분이 너무 커 불안정해 보였고, 도형들도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것

이 많았으며, 표면은 상처가 난 듯했다. 그러한 모습에 관객들은 스미스의 작품에 선뜻 다가가기 어려웠다. 그러자 학자들은 그의 생애가 어떠한지 연구하며, 화려한 명성 뒤에 숨겨진 공격성과 불안의 배경을 찾기 시작했다. 스미스가 어릴 때 받았던 내면의 상처는 성인이 되어 없어진 듯 보였으나, 작품에서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어릴 적 상처가 얽힌 데서 표출하는 일은 성경에도 종종 기록되어 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차별과 편애는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 첩의 소생으로 모욕과 차별을 당했던 입다는 사사

가 된 뒤, 왜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하지 않았냐는 에브라임의 말에 4만 2000명을 학살했다. 같은 일에 '에브라임은 이보다 더 큰일을 이루었지 않았나.'며 위기를 넘긴 기드온과는 사뭇 달랐다. 스미스의 공격적이고, 위태로운 조각을 보노라면 치유 받지 못한 어린 시절 상처인가 싶어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아울러 우리의 다음세대를 생각하게 된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 것은 물론 숨겨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은혜뿐임을 다시 알게 하신다.

[G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 그림설명: 데이빗 스미스, <큐바이 19(Cubi 19)>, 1964년, 스테인리스 스틸 용접, 2864×1480×1016 mm, 테이트 갤러리 소장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새벽에 터미널에서 만난 할아버지,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주님과 단들이 떠난 전도여행. 광주터미널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한 후, 여기저기 누울 만한 곳에 누워 있어 보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너무 말뚱말뚱했습니다. 버스 시간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 되어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89세가 되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가시는지 물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에는 새벽을 통째로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요즘엔 어떻게 지내시는지... 버스 시간이 되어 헤어지기 전에

꼭 안아드리며 전도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권유했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꼭 뵈고 싶었습니다. 새벽에 광주에서 출발해 아침 일찍 순천에 도착했습니다. 추운 아침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오늘 하루 종일 전도하며 다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두려움을 이기는 목마름을 주셨습니다. 이리저리 걸어 다니며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인력사무소 앞에서 일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아저씨들께, 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고등학생 무리를 따라가다가 한 고등학교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등교 시간이어서 많은 학생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순천고등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였는데 듣기로는 주변 지방에서 이 학교로 많이들 다닌다고 합니다. 그곳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 전라도 온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버스 터미널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진 후, 마지막 도시인 광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에서 광양은 버스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광양이 장날이었던 것입니다. 시장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제 심



▲ 올해 초 전도여행 중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제공: 박은준

장도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감의 두근거림이라기 보단 두려움의 두근거림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100장의 전도지는 거의 도착함과 동시에 사라졌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목소리를 마음껏 활용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많았고, 저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주님과 작전타임을 다시 가졌습니다. 혼자 있으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밖에 찾고 구할 다른 분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아침 목상을 붙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움보다 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에 너를 내던지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마디를 떼는 것이 어려웠지 그 이후는 하

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선포를 하면 할수록 두려움보다는 그 영혼들을 향한, 광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 주셨습니다. 전도를 마친 후 주님과 단들이 마무리 모임을 근처 이름 모를 한 공원에서 가졌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주님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원하는 때에 샤워를 할 수 있고, 냉장고를 열면 먹을 음식이 있고, 언제든지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제 삶에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특권과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GPNEWS]

박은준



▲ 올해 초 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는 전도팀 모습. 제공: 박은준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구독신청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1. 5. 20 ~ 6. 2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김성희 김애심 김일범 김정희 김혜신 나도춘 노은옥 박경희 박숙자 박현숙 안민자 안수경 오금애 오세주 우 석 윤경석 이성준 이영옥 이은주 이종훈 이주선 이준진 이진희 장근혜 조명숙 조형광 차상복 차익수 최점옥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김화제일교회 목자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복음가득한교회 새순교회 웹시은교회 시흥교회 신한테크 선한목자교회 오보평강교회 오예교회 열매교회 주만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주나임교회 처음사랑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완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